조계종 두 신도회 통합 논의

총재 정대스님 "실무위 구성 통합하라"

중신회 · 전신회, 화합 당위성엔 공감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통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대 신도회의 당연직 총재인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통합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두 신도회 간부들 역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이 6일 신임인사차 예방한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 등 회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불자들은 조계종 신도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두 신도회가 뜻을 합쳐 화합에 나서달라"고 말한 것이 이같은 기대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통합을 하더라도 한쪽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1년씩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는 공동회장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진규 회장은 "나 자신이 회장을 못하더라도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전국신도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신도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통합에 나서겠다"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중앙신도회 임동현 기획실장도 "전국신도회가 통합 논의를 요청해 오면 언제든지 실무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 주도의 통합논의는 반대한다. 신도회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성을 갖고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통합 신도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감투 싸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위성에는 이의가 없을지라도 정관 개정 등 실무적인 부분을 놓고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총무원장 고산스님도 올해 초 신도회 통합을 요청했으나, 전국신도회의 사단법인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전국신도회가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처럼, 상호간의 적절한 양보도 필요하다.

양 신도회가 통합을 이룬다면 명실상부하게 신도의 대표단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신도회의 힘이 커질 경우 종단의 분열을 예방할 수 있고, 불교의 외호세력으로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머리만 있고 몸과 발이 없는 신도회'란 오명을 벗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 떠나신 빈자리 너무 큽니다"

일타스님 가시던 날

2만여 사부대중 애도속 다비식 엄수

유언따라 법구엔 금란가사만 덮어

한국불교 선, 교, 율의 큰 봉우리 동곡당 일타(東谷堂 日陀) 대종사가 헌옷마저 태워버리고 원적에 들었다.

5일 오전11시 은해사에서 엄수된 영결식은 다섯 번 울린 멍종의 여운이 팔공산에 맴도는 가운데 시작됐다. 청혼독경과 지관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육성녹음 청취, 은해사합창단의 조가가 경내에 울려퍼지자 사부대중의 흐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은 부의장 종산스님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스님은 계율정신을 계승하며 종단의 각종 제도를 정립하는데 정신적 토대가 되셨다"며 "평소의 대비원력으로 어서 속히 저희들 곁에 빛으로 돌아오시어 환도중생(還度衆生)하소서"라고 추모했으며, 종정 혜암스님은 "칠십일년간을 덧없는 꿈속에 놀다가 인연이 다하여 몸을 버렸으니 버린 후엔 어떤 곳을 향하는고? 향할 것도 갈 것도 머물 것도 없도다.(七十一年一場夢 臨終如今放四大 棄却後向甚麼處 無向無去亦無住)"라고 법어를 내렸다.

또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스님의 본분가풍에는 오고감이 없지만 미망의 뜻을 다 떨치지 못한 후학들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며 애도했다.

이어 문도 문중 종단 신도 내빈 대표의 헌화와 헌향이 끝나자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 오방번 등 5백여장의 만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경내를 한바퀴 돌아 산내 다비장으로 향했다. 유언에 따라 스님의 법구에는 꽃 대신 스님이 수하던 금란 가사 한 벌만이 소탁하게 덮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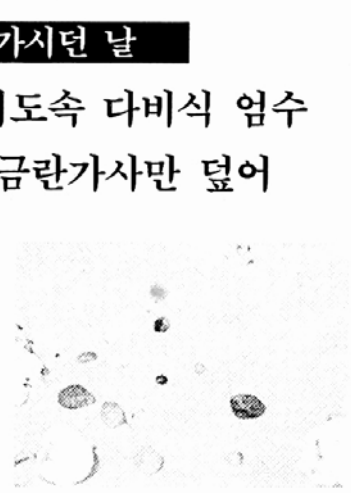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擧火)의식이 진행됐다. "큰스님, 집에 불났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 번의 외침에 이어 연화대에 불길이 당겨졌고, 잿빛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불자들의 나무아미타불 정근이 길게 이어졌다.

일찍이 "몸뚱아리는 뜬구름과 같아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 마디를 연비 발원했던 스님의 나머지 육신마저 허공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종정 혜암스님을 비롯 청하 성수 숭산 보성 지종 법전 도견 등 원로대덕스님들과 스님의 속가제자인 이인제 前경기도지사,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2만여명이 운집했다.

한편 일타스님 문도들은 이날 "實言告饒諸弟子等 波亂月難現 室深燈更光 勸君整心器 勿頃甘露漿=진실한 말로 내 그대들에게 전별을 고하노라. 파도가 심하면 달이 나타나기 어렵고 방이 그윽하면 등불이 더욱 빛나도다. 그대들에게 마음 닦기를 간절히 권하노니 감로장을 기울어지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스님의 유교(遺敎)를 공개했다.

한편 일타스님 장의위원회는 6일 다비한 일타스님의 유골에서 영롱한 사리 30여과를 수습했다. 은해사=이윤호 기자



◇일타스님 유골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30여과의 사리가 수습됐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 영결식이 5일 은해사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를 통해 "미망을 떨치지 못한 후학들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은해사=고영배 기자

영결사<요지>

"빛으로 돌아와 환도중생 하소서"

탄성스님
원로회의 의장

일타스님이시여! 그 거추장스럽던 육신을 벗어던지니 이 순간 얼마나 후련하십니까? 일단영광 독로(一段靈光 獨露, 신령스런 빛으로 드러나니) 하여 생사거래에 매이지 않으시니 그 또한 얼마나 상쾌하십니까?

범승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연비로써 수행자의 치열한 면모를 보여주시어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종단이 어려웠던 시절, 스님의 높은 학문(學問)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혼란하던 시기에 스님께서는 계율정신을 계승하며, 종단의 각종 제도를 정립하는 데 정신적 토대가 되셨습니다.

금생이 다 하면 "다음 생에는 미국땅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수행한 후 세계인을 제도하겠다" 하신 발원 따라 미국땅에서 입적하셨군요. 우리 곁에 늘 계시리라 믿었던 스님께서 가시니 더욱 그리워 집니다. 스님의 자상하시고 고구정녕하신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없습니다.

일타스님이시여! 스님께서는 평소 선사로서 정진하시다가도 종단과 중생의 어려운 일을 보면 일어나 분연히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할 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소의 대비원력으로 어서 속히 저희들 곁에 빛으로 돌아오시어 환도중생(還度衆生)하소서! 부디 돌아오소서. 불기 2543년 12월 5일

◇일타스님 49재 장소 및 일자

재	장소	일자	문의
초재	은해사	12월5일(음10/28)	(0563)335-3318
2재	해인사 지족암	12월12일(음11/4)	(0599)932-7302
3재	통도사	12월19일(음11/12)	(0523)382-7182
4재	수덕사	12월26일(음11/19)	(0458)337-6613
5재	송광사	1월2일(음11/26)	(0661)755-0107
6재	제주도 약천사	1월9일(음12/3)	(064)738-5000
7재	해인사	1월16일(음12/10)	(0599)931-1001

일타스님 가르침 불서로 남아

큰스님 가신 빈 자리에 그 가르침은 더욱 크다. 계정혜 삼학에 통달한 스님은 이제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서 우리 곁에 온화한 모습, 부드러운 음성으로 머물러 계신다.

92년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간경화)를 지리산 칠불암에서의 용맹정진으로 다스린 이후부터 책으로써 불자들을 제접했다. 〈기도〉 〈생활속의 기도법〉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등 신행안내서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등 법어집, 경전 · 어록풀이집인 〈시작하는 마음〉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등 10여 종에 이른다. 특히 〈기도〉 〈생활 속의 기도법〉 등의 책은 불교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으며, 기복에 치우쳤던 신행풍토를 바로잡고 3천배 등 기도정진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일타스님은 76년 해인총림의 율사로 있을 때 후학들을 위해 〈사미율의〉 〈불교와 계율〉 〈범망경보살계〉 등 계율과 관련된 책을 펴냈다.

목어

'인사동'에 상 주는 이유

21세기는 무엇이 주된 흐름으로 이어질까.

먼저 정보화일 것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의 첨병이 발달되는 세상이고 보면 기필 정보화를 통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생명복제의 문제도 핫 이슈로 떠 오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곤 환경문제다. 앞의 두가지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인위적인 번동이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후세에 남겨줄 악성적 유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들의 인식 수준은 대단히 미흡하거나 무관심에 가깝다. 지금 미래의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일부 시민이나 단체들도 이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이견을 갖고 있다. 흔히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동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운동을 익숙하게 보고 지낸 우리들에게 퍽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인사동 골목길'에 상을 준 환경운동모임이 그것이다. '풀꽃세상'이란 이름의 이 모임은 환경보존과 환경친화적인 운동을 감성적으로 도입하고 이성적으로 실천하는 자생적 모임이다. 일년에 네번 상을 주는데 첫번째는 동강의 비오리에게, 두번째는 보길도의 조약돌에게, 세번째는 민둥산의 억새풀에게 주었고 이번에는 인사동 골목길이 본상에 선정되었다. 이런 상의 선정이 감성적이라고 오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본상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분께 부상을 드리는 것으로 자연보호와 친화적 실천을 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들은 이 상을 왜 인사동 골목길에 주는가 하는 깊은 속내를 읽을줄 알아야 한다. 그 속내를 실천하는 풀씨들이 넓고 깊게 그리고 멀리 번져나갈 때 환경의 문제는 실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연민, 부드러움과 신뢰, 타자에 대한 친절과 존중, 세계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생명에 대한 외경, 북돋움'등을 잔잔히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풀꽃세상모임의 아름다움이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바란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건립모연문

삼천배참회기도회관 조감도
지하1층, 지상 4층(연건평 1,264평)

설 계 감 리 : 삼경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하규양

귀의 삼보하옵고

당 감로사에서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회관 신축을 수십년전부터 발원하여 오다가 이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감로사는 6 · 25 동란을 당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청담 운허 자운 향곡 성철 홍경 벽안 석암 영암 월하 보경 일타 보안 지관 스님 등 제방의 큰스님들께서 감로사에 모여 숙의한 끝에 『중생의 업장이 지중 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니 국난을 퇴치하는 길은 부처님께 참회기도 정진 뿐』이라하시며 대중적으로 감로사에서 참회기도를 시작하여 금년으로 48회째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여 소원성불을 받았습니다.

감로사는 정화불사 이후 국내 처음으로 삼천불전을 건립하여 삼천부처님을 봉안하고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신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삼천배 참회기도 회관이 없기에 회관건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설판제자도 없고 시주자도 없지만 많은 사부대중께서 회관건립에 동참해 주시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됩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가정은 더욱 평안하고 국가는 더욱 부강하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평화가 오고 온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기원하면서 감히 권선합니다.

불기 2543년 12월
감로사 주지 혜 총

참회기도회관 건립불사 동참구좌
조흥은행 : 409-01-156143
부산은행 : 048-12-060082-7
(예금주 : 감로사회관건립)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051) 809-0926, 803-0188